

# 코로나19가 프랑스 경제에 미친 영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프랑스

이태훈 (스위스 제네바 국제개발대학원 개발경제학 박사과정)

## ■ 머리말

2020년 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유럽 내에서는 점차 수그러지는 모양새다. 비록 전 세계에 걸쳐 확진자 수가 천만 명에 육박하지만, 일일 확진자 수 기준 순위권을 차지하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은 것으로 보인다.<sup>1)</sup> 이에 따라 보건 위기(health crisis)를 타개하기 위해 적용되었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휴교나 자가격리 등의 공격적인 비약물적 중재조치(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들이 완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6월 15일부로 EU 역내 국경은 개방되었고 역외 국경개방 또한 검토 중에 있다. 비약물적 중재조치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경제충격을 가중시켜 왔다. 때문에 각국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단한 대응<sup>2)</sup>을 왔으나 경제충격의 여파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을 프랑스의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2020년 6월 22일 기준 1일 확진자 수: 프랑스 373명, 이탈리아 221명, 독일 544명, 스위스 18명.

2) 송지원(202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18(5), pp.70~81; 이태훈(2020), 「프랑스의 코로나19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18(5), pp.82~88; 채민석(2020), 「영국의 코로나19 대응」, 『국제노동브리프』 18(6), pp.73~81.

## ■ 코로나19의 특이점

코로나19는 개발도상국에 더 큰 영향을 미쳤던 지난 전염병들과 다르게 G7를 비롯한 경제 선진국을 강타했고 감염속도는 2012년 메르스(MERS)보다 훨씬 빠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탈리아를 포함한다. 이들 국가는 세계 경제 GDP의 60%를 차지하고 생산의 65%를 담당하며 세계 생산 수출의 41%를 차지할 만큼 중요도가 높다. 코로나19가 갖는 강력한 전파력은 여러 나라에 급속한 보건 위기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로 경제를 마비시켰다. 우선 직장이나 학교 등, 물리적 공간의 폐쇄 및 국경 봉쇄 등의 정책도구를 촉구함으로써 공급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생산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공급충격을 야기시킨 2011년 태국 대홍수나 동일본 대지진 등의 자연재해와는 다르게 충격의 지리적 범위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충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충격 또한 물리적인 제약에 기인하지만, 여기에 심리적인 요소가 더해져 수요심리를 위축시키고 수요충격으로 인한 여파는 심화될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한 경제충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방역정책과 경제정책 간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 관련 연구

다음으로 전염병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들과 코로나19가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최신 연구들을 소개한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경기침체는 예상되지만 그 정도와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학계 내 의견은 좀처럼 모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전염병과 경제 위기를 연결시키는 연구 자체가 드물기에 과거의 전염병과 비교하여 코로나19의 여파를 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Barro et al.(2020)은 1918~20년까지 2년에 걸쳐 당시 전 세계인구의 2.1%인 총 4천만 명(현재 인구 기준 약 1억 5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이 보여준 여파를 일종의 상한선으로 추정, 코로나

19의 잠재적인 여파를 예측했다. 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경제충격 효과를 GDP의 6%, 민간소비의 8% 감소로 추정하고 높은 사망률이 주식과 단기 국채의 실질 수익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충격은 각 나라가 도입한 방역정책에 따라 내생적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같은 비약물적 중재조치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실효를 거두었는지 알아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Correira et al.(2020)는 보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역정책들이 반대의 경제효과를 거두었는지를 연구했다. 그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1918년 스페인 독감 시기에 비약물적 중재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가 비슷한 수준의 경제충격을 받았지만 중기적으로는 비약물적 중재조치를 빠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한 도시일수록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었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의 경우 코로나19와는 다르게 20~40대의 젊은층에게 치명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도출해낸 결과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Mckibbin and Fernando(2020)는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동태 확률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델과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올 경제충격의 여파를 예상해 보였다. 이 모델은 총 20개국과 4개의 지역에서 6개의 경제부문과 3개의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받는 영향과 상호작용 결과를 계산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범위, 정도, 기간 등을 기준으로 7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GDP 손실을 예측하였는데, 이중 코로나19가 중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 네 가지 시나리오의 결과치는 <표 1>과 같다. 세 가지 시나리오는 팬데믹이 결국 종식된다는 가정하에 피감염률(10%/20%/30%)과 치명률(2.0%/2.5%/3.0%)을 설정한 것이고, 나머지 시나리오는 코로나19가 저장도로 매년 발병한다고 가정했다.

마지막으로 고빈도 데이터(high-frequency data)를 통해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본 연구를 소개한다. Chen et al.(2020)은 전기사용, 모빌리티, 중소기업과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유럽국가와 미국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추적했다. 코로나19의 여파는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동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포착될 수 있는데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에 더 큰 충격(사망자 수 기준)을 받고, 사람들의 이동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나라일수록 전기사용이 줄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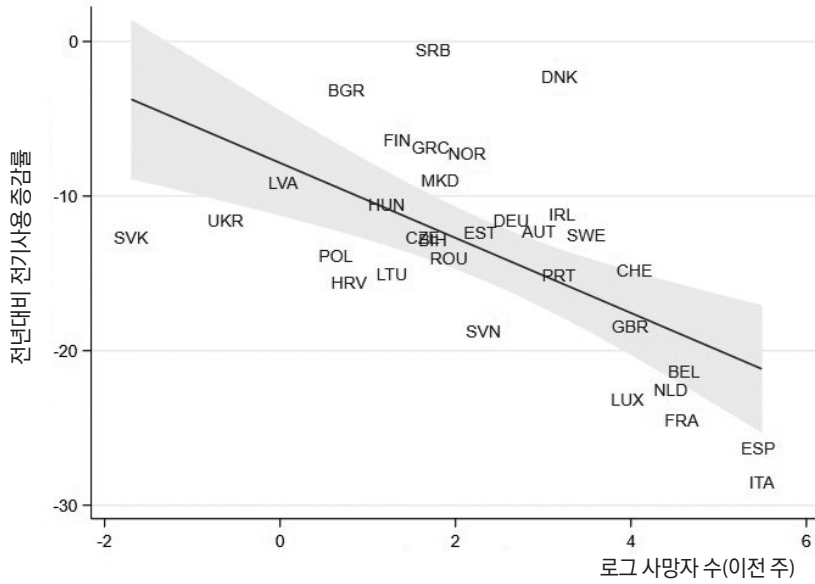
<표 1> 시나리오에 따른 2020년도 GDP 손실(기준치로부터의 이탈률)

(단위 : %)

	시나리오 1 (강도: 저, 일시적)	시나리오 2 (강도: 중, 일시적)	시나리오 3 (강도: 고, 일시적)	시나리오 4 (강도: 저, 영구적)
남아프리카 공화국	-1.8	-4	-7	-1.5
대한민국	-1.4	-3.3	-5.8	-1.3
독일	-2.2	-5	-8.7	-1.7
러시아	-2	-4.6	-8	-1.9
멕시코	-0.9	-2.2	-3.8	-0.9
미국	-2	-4.8	-8.4	-1.5
브라질	-2.1	-4.7	-8	-1.9
사우디 아라비아	-0.7	-1.4	-2.4	-1.3
아르헨티나	-1.6	-3.5	-6	-1.2
영국	-1.5	-3.5	-6	-1.2
이탈리아	-2.1	-4.8	-8.3	-2.2
인도	-1.4	-3.1	-5.3	-1.3
인도네시아	-1.3	-2.8	-4.7	-1.3
일본	-2.5	-5.7	-9.9	-2
중국	-1.6	-3.6	-6.2	-2.2
캐나다	-1.8	-4.1	-7.1	-1.6
터키	-1.4	-3.2	-5.5	-1.2
프랑스	-2	-4.6	-8	-1.5
호주	-2.1	-4.6	-7.9	-2
그 밖의 EU 국가	-2.1	-4.8	-8.4	-1.9
그 밖의 OECD	-2	-4.4	-7.7	-1.8
그 밖의 아시아	-1.6	-3.6	-6.3	-1.5
그 밖의 원유생산국	-1.4	-3.2	-5.5	-1.3
그 밖의 전 세계	-1.5	-3.5	-5.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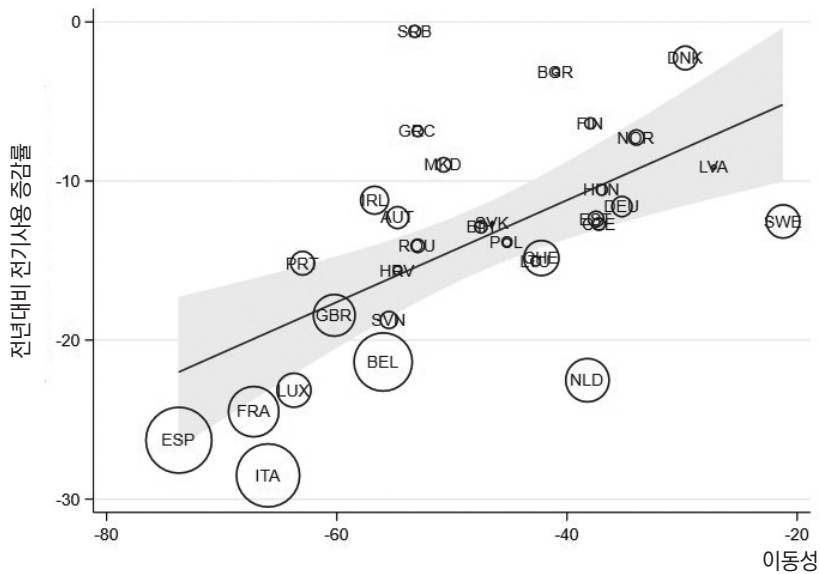
있다. 결론적으로 비약물적 중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경제를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보건 위기가 통제되지 않을 시 봉쇄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예상되는 효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 1]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전기사용



자료 : Chen et al.(2020).

[그림 2] 스마트폰을 통해 측정된 이동성과 전기사용



자료 : Chen et al.(2020).

## ■ 프랑스 경제에 미친 영향

2020년 5월 11일에 2개월 동안 시행되었던 전국적인 봉쇄령이 해제됨에 따라 프랑스 경제도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통계치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아직 요원하다. 6월 발표된 프랑스 중앙은행의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예상치에 따르면 15%의 GDP 역성장을 기록한 2분기를 지나 3분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2021년에는 7%, 2022년에는 4%의 성장이 예상된다. 즉 2019년 말 수준의 경제회복은 일러도 2022년 중반 무렵에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고용에 주는 충격은 부분실업이나 단기고용을 통해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지만 시기만 늦춰졌을 뿐 일자리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통계청(INSEE)이 발표한 초기 추정

<표 2> 주요 거시경제지표 예상치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1.0	2.4	1.7	1.3	-10.3	6.9	3.9
GDP 성장 기여도(%p)							
내수 수요	1.8	2.3	1.3	1.8	-9.8	7.8	4.3
순수출	-0.4	-0.1	0.7	-0.1	-0.3	-0.3	-0.3
가계 소비	1.6	1.6	0.9	1.3	-9.3	8.4	4.3
정부 지출	1.4	1.5	0.8	1.3	0.7	0.9	1.4
총 투자	2.5	5.0	2.8	3.7	-21.2	15.0	7.0
정부 투자	0.0	0.5	2.4	4.2	-7.3	4.6	1.0
가계 투자	2.8	6.6	2.0	2.0	-24.5	16.8	6.9
민간 투자	3.1	5.5	3.2	4.2	-23.3	17.4	8.6
수출	1.8	4.0	3.5	2.0	-14.3	8.6	4.6
수입(32%)	3.0	4.1	1.2	2.3	-12.9	9.0	5.4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1.6	1.4	1.2	2.1	-0.5	0.9	2.1
순 고용창출(단위: 1,000)	177	275	341	284	-552	-355	427
ILO 실업률	10.0	9.4	9.0	8.4	10.1	11.7	10.4
소비자물가지수	0.3	1.2	2.1	1.3	0.4	0.5	0.9
GDP 디플레이터	0.5	0.5	0.8	1.5	1.1	-0.1	0.4

자료 : INSEE(프랑스 통계청), Aldama et al.(2020) 재인용.

치에 따르면 시장부문의 고용은 2019년 12월 말과 비교하여 3월 말에 2.3%(453,800명) 감소했다. 또한 2020년 4분기 총 일자리 수는 2019년 말보다 거의 백만 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표 3 참조).

<표 3> 고용과 실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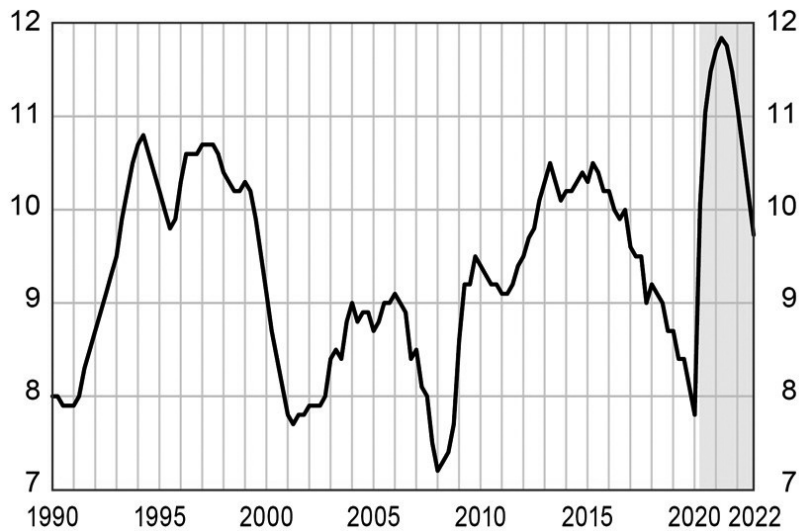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6개월 전 대비 등락치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2020 상반기	2020 하반기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	2020 상반기	2020 하반기
총 고용	173	133	-579	-401	-81	131	270	292
시장부문 고용	164	125	-572	-361	-65	132	268	299
비시장부문 고용	2	-3	-6	0	0	0	0	0
비정규직 고용	7	11	0	-40	-16	-2	2	-6
경제활동인구 수	81	48	30	30	30	25	20	20
실업자 수	-92	-87	609	431	111	-106	-250	-272
ILO 실업률(%)	8.4	8.1	10.1	11.5	11.8	11.5	10.6	9.7

자료 : INSEE(프랑스 통계청), Aldama et al.(2020) 재인용.

[그림 3] 실업률 추이

(단위 : %)



자료 : 프랑스 통계청(INSEE), Aldama et al.(2020) 재인용.

5월 중순에 발표된 수치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실업률은 2019년 말에 비해 0.3%포인트 하락한 7.8%였다. 그러나 이러한 완만한 감소는 봉쇄정책으로 인해 왜곡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은 다가오는 분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2021년 중반에 일시적으로 11.5% 이상을 기록할 것이 예상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2022년 말까지 9.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은 경제활동인구의 행동양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들이 경제상황을 비관하여 경제활동 시작을 미룬다거나 감소한 가계 소득으로 인해 가계 내 비경제활동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개시하는 등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 ■ 맺음말

코로나19는 유례없는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각국은 재정확대 등 여러 방면으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지만 보건 위기가 종식되지 않는 이상 소비 및 생산 활동의 위축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가 경제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역성장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물론 뛰어난 방역정책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지만 2차 대유행 등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어떠한 출구전략을 통해 보건 및 경제 위기를 동시에 타개해 나갈지 정부를 비롯해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KLI**



---

---

## 참고문헌

---

---

- Aldama, Pierre, Cancé Raphaël, Cochard Marion, Delorme Marie, Honvo William, Kalantzis Yannick, Levy-Rueff Guy, Lor-Lhommet Emilie, Ouvrard Jean-François, Perillaud Simon, Rouvreau Béatrice, Sabalot Paul, Schmidt Katja, Sigwalt Antoine, Thubin Camille, Ulgazi Youssef, Vertier Paul, Vu Thao(2020), *Macroeconomic projects*, Bank of France.
- Baldwin, R and B Weder di Mauro(2020), “Economics in the time of COVID-19”, London: CEPR Press.
- \_\_\_\_\_(2020), “Mitigating the COVID Economic Crisis: Act Fast and Do Whatever It Takes”, London: CEPR Press.
- Barro, R, J Ursua, J Weng(2020), “The coronavirus and great pandemic: Lessons from the Spanish flu for the coronavirus' potential effects on mortality and economic activity”, *NBER working paper* 26866.
- Chen, S, D Igan, N Pierri and A F Presbitero(2020),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and Mitigation Policies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IMF Special Series on COVID-19*.
- Correia, Sergio and Luck, Stephan and Verner, Emil(2020), “Pandemics Depress the Economy, Public Health Interventions Do Not: Evidence from the 1918 Flu”.
- McKibbin, Warwick J. and Fernando, Roshen(2020.3.2), “The Global Macroeconomic Impacts of COVID-19: Seven Scenarios”, *CAMA Working Paper No. 19/2020*.